

전남교육청, '평화·통일 정책리더 자율기획 워크숍' 실시

통일교육 업무담당 장학사(관)·연구사(관) 25명 대상

시·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정책 리더 연수' 일환

지역별 평화통일교육 정책수립·현장지원 위해 마련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6일 여수시 일원에서 통일교육 업무담당 장학사(관)와 연구사(관) 25명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정책리더 자율기획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운영한 시·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정책리더 연수의 일환으로 지역별 평화통일교육 정책수립과 현장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역사공간 벚 대표연구원 주철희 교수는 '여순항쟁과 분단 그리고 통일'이라는 주제의 강

의를 통해 우리 현대사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적대적 사고의 근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주 교수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특별법 제정 뿐 아니라 정확한 역사적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주권을 당연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연수생들은 14연대 주둔지, 중앙동 집회장, 만성리 위령탑, 형제묘 등 여수 지역 여

순사건 현장을 답사했다.

연수에 참석한 한 장학사는 "우리나라 근·현대사 속의 갈등과 분단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적대와 혐오문화를 버리고 존중하고 연대하는 민주시민의식을 키워가며 평화감수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수생들은 워크숍에 앞서 한반도평화정착과 평화체제, 변화하는 북한 이해 등의 원격 연수를 이수했다.

지난 10월6일과 7일에는 김누리교수, 김진향 개성공단 이사장, 강주원 서울대 교수 등이 강사로 참여한 유튜브 쌍방향 소통 온라인 연수를 통해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을 넓히며 소통했다.

이병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서 통일 관련 업무를 맡고 있



는 장학사, 연구사들이 이번 연수를 통해 평화통일교육 전문성을 높여 학교 현장의 평화·통

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정환기자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영암 방과후학교

내일 중학교 방과후학교 담당자 대상 연찬회 실시

영암교육지원청(김성애)은 5일 초등학교 교감 및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회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시 유의 사항, 외부청렴도 제고 방안 및 2021학년도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운영방안등을 논의 후 인근 마을 학교를 찾아 매듭공예를 체험하고 하였다.

이날 참석한 영암초 김효빈교사는 "방과후학교 업무 협의 뿐만아니라 체험을 함께 할 수 있어 색다른 경험이었으며 2021학년도 운영 방

안을 논의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성애 교육장은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들의 노력을 격려하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적 여건과 지역 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고, 교사의 열정이 넘치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방과후학교를 만들자."고 말했다.

오는 11일에는 중학교 방과후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광주 삼정초, 따뜻한 위로·감동의 음악 선물 받아



삼정초가 지난 6일 광주시교육청의 '찾아가는 힐링 스쿨 콘서트'를 통해 전교생 및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주는 음악 선물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찾아가는 힐링 스쿨 콘서트'는 광주시교육청이 학생·학부모·교직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주기 위해 학교 현장을 찾아가 아름다운 공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공연은 대금 연주자의 아리랑 연주, 팼제라 가수의 영화 '알라딘'·'겨울왕국' OST 열창, 전자 바이올린 연주로 진행됐다. 삼정초 학생들은 처음에는 낯선 악기와 연주에 놀라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연에 집중했다. 학생들은 열렬한 박수를 쳤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아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조인호기자

광주 동산초, 코로나19 상황 속 안전한 배움 위한 노력

교육지원팀 중심으로 실천... '자체 세부 매뉴얼' 제작



광주동산초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배움이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힘 쓰고 있다.

8일 광주동산초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이 주인이고, 학생의 성장을 위해 교사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집중해야한다는 철학을 교내 교육지원팀을 중심으로 실천하고 있다.

광주동산초 교육지원팀은 학생들의 등교 시 교직원과 학부모가 할 일을 시간대와 장소별로 정리했다.

교직원 대면 모임이 어려워질 상황에 대비해 긴급 공지,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온라인 모임방을 마련했다.

교육지원팀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코로나19 지침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교직원 협의를 통해 '자체 세부 매뉴얼'을 제작했다.

보건교사와 협력해 코로나 상황에서의 일과를 시뮬레이션하고 시범을 보여 교직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 학생 등교 시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학부모 설문지를 통해 등교 개학 시 걱정되는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고 정리했다. '학교는 안전하고, 학교는 늘 학부모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과 카드뉴스를 만들었고, 안전한 등교를 위해 학부모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배부했다.

광주동산초 교육지원팀은 수업 준비에 바쁜 교사를 대신해 교육자료 동영상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학교의 모습과 교사들의 바쁜 일상과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듬뿍 담은 '학교는 지금'과 '선생님들은 뭘 하지?' 동영상,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

하기 위한 '주먹밥 만들기', 방학하는 날에는 '당연한 것들'과 '방학 축하'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했다.

원격수업이 장기화 되던 때에는 교육지원팀과 학년별 교사들이 힘을 합쳐 수업 꾸러미를 제작해 학생에게 직접 배부하거나 꾸러미 배부함을 시청각실에 설치해 학부모나 학생이 직접 꾸러미를 찾아가도록 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지쳐갈 때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마음의 지지와 기쁨을 주기 위해 등굣길 흥겨운 음악 들려주기, '교장이 쓴다! 슬기로운 등교 수업', '여름 방학 이벤트' 등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광주동산초는 '협력적 배움'이라는 학교의 중요한 가치를 잊지 않고 구성원이 함께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편 광주동산초는 지난 2011년부터 빗고을혁신학교로 운영됐고, 학생의 성장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교육활동을 만들어왔다. 광주동산초 구성원 모두가 학생의 성장을 위해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해 왔고, 되돌아보기를 통해 실패도 성공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음을 배웠다.

광주동산초 채관경 교장은 "축적된 공동체의 힘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한 배움이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야기하고 협력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며 "광주동산초는 위기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잊지 않고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동산 교육의 모습을 그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호기자

